

보도일시 (인터넷) 2023. 12. 10.(일) 11:00, 배포 2023. 12. 8.(금) 오후
(지면) 2023. 12. 11.(월) 조간

포항 영일만항, 안전하고 친화적인 항만으로 재탄생

- 12. 10.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공사 준공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6년간 추진해 온 ‘포항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공사’(이하 ‘영일만항 방파제 보강공사’)를 12월 10일(일) 준공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태풍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포항 영일만항의 항만시설 피해와 배후지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총 2,128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 11월부터 ‘영일만항 방파제 보강공사’를 추진하였다.

이번 공사를 통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전면 해상 총 3,054m 구간에 있던 기존 방파제의 높이를 4.5~6.5m 올리고 파도를 막아주는 블록으로 보강하여 더욱 안전하고 튼튼한 방파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육지와 붙어있는 어항방파제 510m 구간도 방파제 높이를 2.9m 올려 배후지역 침수 방지기능을 보강하였으며, 어항방파제의 상부 부지는 친수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포항 영일만항은 컨테이너 부두, 일반부두, 해경부두, 국제여객터미널부두 등 다양한 목적의 항만시설이 공존하는 지역 경제 중심지이다.”라며, “이번 공사가 재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친수시설 조성 등으로 더 많은 항만이용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항만을 찾게 되어 지역주민 여가 및 휴식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	책임자	과장	전충남 (044-200-5950)
		담당자	사무관	권영민 (044-200-5972)

참고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공사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기후변화에 따른 항만구역 피해예방 및 정온수역 확보를 통한 항만안전성 도모
- (사업규모) 북방파제(1단계) 보강 : 3,054.5m(상치콘크리트 보강, 소파블럭 보강 등), 어항방파제 510.8m, 부대공 1식 등
- (총사업비/사업기간) 212,770백만원 / '17.11. ~ '23.12.

□ 위치도



□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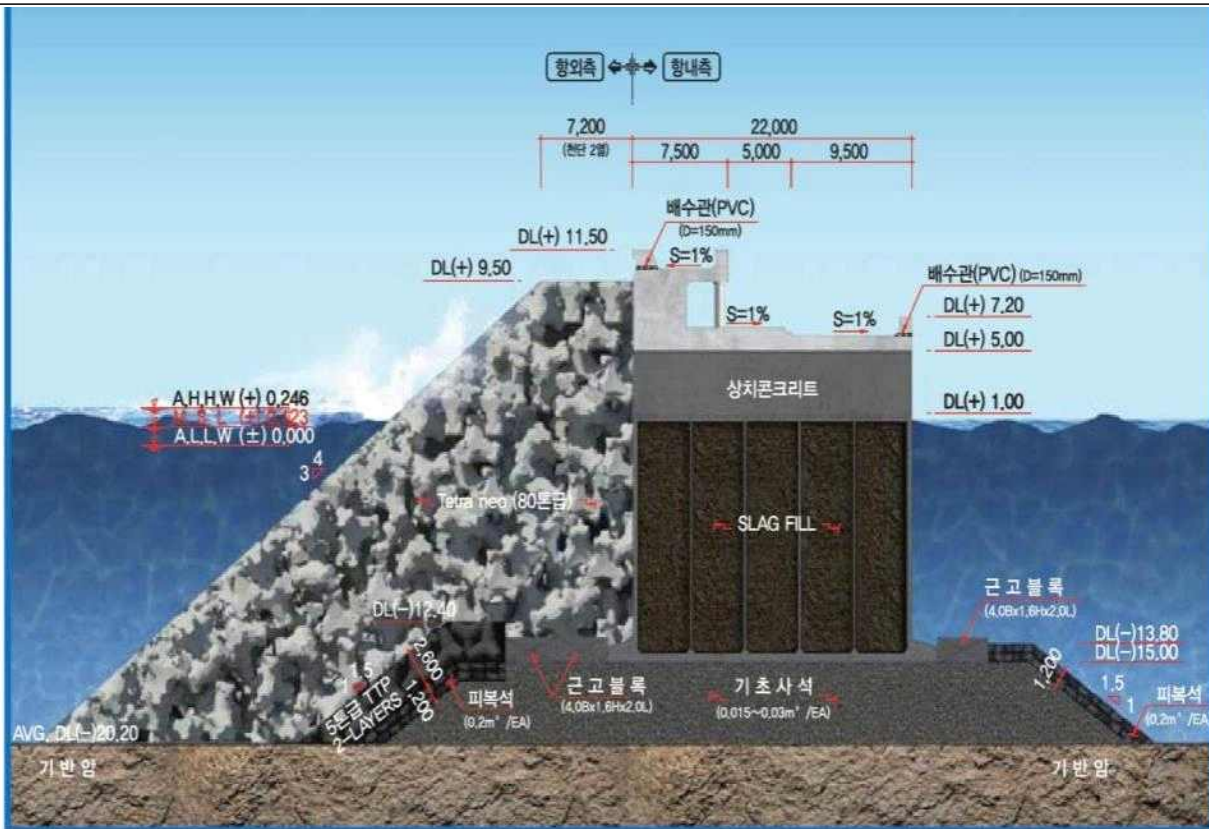


북방파제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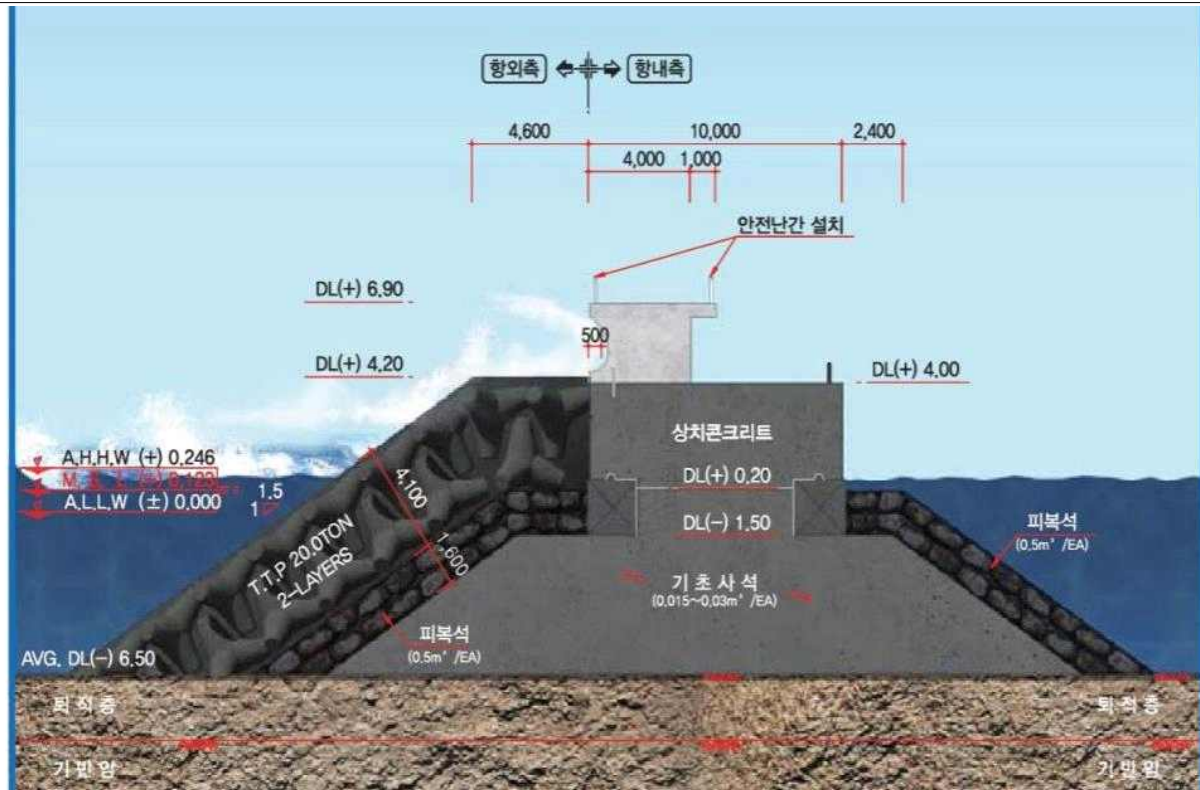


어항방파제 조감도

□ 표준단면도



북방파제 보강 표준단면도



어항방파제 보강 표준단면도